



## 제3기 벤처 최고경영자 과정

# 베트남 연수 엿보기

벤처기업인들만을 위한 특화 교육과정인 벤처 최고경영자과정의 3기 수강생들이 베트남에 다녀왔다.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3박 5일의 일정동안 베트남의 기업환경 및 문화를 알차게 체험하고 돌아온 제3기 벤처최고경영자 과정 수강생들의 베트남 방문기.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비즈업정보라인(주)  
장순주 대표

### 베트남, 우리를 기다리는 또 다른 시장

3박 5일의 베트남 워크샵 준비로 분주한 나에게 아들 녀석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음, 별 하나짜리 나라로 가는구나!”란다. 무슨 소린가 하고 한참 생각하는 나에게 아들이 베트남 국기가 그려진 그림을 내밀었다. (참고로 열 살인 우리 아들은 국기에 그려진 별의 개수가 많을수록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빨간 바탕에 선명한 황색의 별 하나가 그려진 베트남 국기. 떠나기 전엔 아들 말대로 내게 별을 그려 넣으라면 베트남은 별 하나짜리라고 짐작했었다. 그러나 정확히 3박 5일 후 내게 베트남은 무섭게 성장하는 별로 바뀌었다.



5월 16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만난 우리 3기 벤처최고경영자 과정 사장님들은 모두 낯선 모습이었다. 평상시 수업 받을 때의 정장은 다 벗어 던지고 반바지에 샌들까지... 낯설지만 자유를 얻은 사장님들의 표정이 너무도 행복해 보였다.



5월 17일, 베트남에서의 첫 아침을 열며 커튼을 걷어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호텔 앞 8차로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 행렬, 꼬리에 꼬리를 문 오토바이의 소음... 베트남에 왔음을 제대로 실감할 수 있었다. 첫날은 하폐이성 인민위원회 투자국 방문이 있는 날이라 모두 가져온 정장으로 다시 변신(?)을 하고 호텔을 나섰다. 하노이와 가까운 하폐이성은 좋은 지리적 여건과 값싼 노동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이라고 한다. 인민위원회에 도착하자 응웬 허이퐁 부성장 및 산업국장 등 열분이 넘는 인민위원회 간부들이 우리 일행을 환대해주었고, 우리나라 기업인 HS development &

construction의 흥선 대표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3시간 동안 이어진 투자설명회는 하퍼이성을 비롯한 베트남 시장의 잠재력이 설명되었다. 더불어 기업인들이 관심을 갖는 토지 구입, 자유로운 송금 문제, 현지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 등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에 대한 Q&A가 진행되어 우리의 궁금증을 상당부분 해소해주는 시간이었다.

다음 일정은 하노이 주재 KOTRA 무역관 방문이었다. 주베트남 대사관의 이은호 상무관의 안내와 KOTRA 하노이 무역관 김영웅 관장의 '베트남 진출 전략 및 유의사항' 관한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어 오후에는 베트남에 성공적인 진출을 한 우리 기업인 비나대성 주식회사를 방문해 이종건 대표로부터 직접 베트남 통신선시장의 성공신화를 들었다. 진출한지 5년여 만에 베트남 통신선시장의 22%를 점유하고 통신케이블업체 2위를 차지한 우리 기업의 저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저녁만찬도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 베트남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인 기업인 및 법률 전문가, 금융 전문가를 우리가 머물고 있던 대우호텔로 초청, 베트남 진출에 주의해야 할 점 등 여러 가지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5월 18일, 이날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 유산 중 하나인 하롱베이를 관광하기 위해 유람선에 몸을 실었다. 배가 서서히 선착장을 뒤로하고 미끄러지듯 나아가자 아름다운 절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망망대해 위에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수천 개의 바위섬들이 흩뿌려진 듯 서 있는 모습에 우리는 말을 잃고 '아~' 하는 탄성만을 질러댔다.

하(Ha)는 '내려온다', '롱(Long)'은 '용'이라는 뜻으로, '하롱'이란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라는 의미이다. 바다 건너에서 쳐들어온 침략자를 막기 위해 하늘에서 용이 이곳으로 내려와 입에서 보석과 구슬을 내뿜자, 그 보석과 구슬들이 바다로 떨어지면서 갖가지 모양의 기암(奇岩)이 되어 침략자를 물리쳤다고 하는 전설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선상에서 저렴한 가격에 다금바리 몇 마리와 펄펄뛰는 새우 한

바구니를 사서 항해하는 동안 식도락을 즐기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었다. 티톱섬에 내려산 정상에 올라 하롱베이의 절경을 다시 한 번 감상하고 아우락 리조트로 돌아왔다.

5월 19일은 관광과 운동의 일정을 즐겼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상인형극 관람으로, 사람들이 직접 물 속에 들어가 줄이나 대나무를 이용해 인형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 춤추게 했는데 음악이나 스토리가 우리나라와 닮은 부분이 있는 듯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창을 스쳐지나는 하노이 변두리 시내 모습은 흡사 70년대 우리나라 시골 읍내를 연상케 했다. 좌편에 내다파는 물건들이며 삼삼오오 모여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은 빛바랜 앨범 속 사진을 보는 느낌이었다. 이런 느낌 때문인지 나중에 우리 회사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면 중국보다는 베트남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여행 동안 보고 느낀 베트남의 에너지와 저력, 경제적으로 무섭게 발전해가는 모습은 우리 기업에게는 더 큰 또 다른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실속있는 일정으로 베트남 기업 활동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이번 베트남 연수. 더불어 부쩍 두터워진 3기 벤처 최고경영자과정의 동반자들 사이의 우정도 덤으로 얻어온 멋진 경험이었다.

